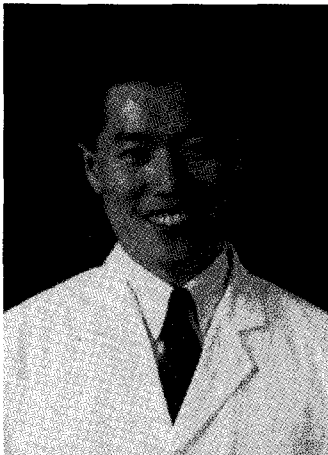


# 한방에서의 당뇨관리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소갈병이라 하며

소갈병의 원인을 비장(脾臟)이 약해지고  
화(火)가 피부에 머무르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본다.



윤영석

춘원당 한의원 원장

모든 병이 그렇기는 하지만 잘 낫지 않는 병일수록 치료법이 많고 소위 “비방”도 많다.

한방에서 비방이 많은 병 중의 하나가 당뇨병인데 이는 그만큼 당뇨병이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당뇨병은 과연 한방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완치는 안되지만 어느정도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치료에 따른 환자의 협조와 낮고자 하는 신념이 확고해야만 하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한방치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한방에서 보는 당뇨병

한방에서는 당뇨병을 소갈(消渴)이라고 하는데 “음욕(淫慾)의 정을 제멋대로 하고 술과 음식섭취에 절도가 없으면 화(火)가 위로 떠올라 장육부에 열이 생기게 하여 이로써 \*상초, 중초, 하초에 병이 드는 것이다.”라고 이천년 전의 한의서에 전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갈다뇨(입이 잘 마르고 소변이 잦음)”인데 증상의 경중에 따라 소갈을 세가지로 나눈다.

즉, 상초에 있는 당뇨는 증세가 그리 심하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시며 식사량은 적으나 대소변은 보통 상태이다.

\*상초 : 한방에서 이르는 삼초의 하나로 횡경막의 위, 심장과 폐장이 이에 딸리고, 호흡기능을 맡는다.

중초 : 엄통과 배꼽의 중간에 위치하여 음식의 소화작용을 맡는다.

하초 : 배꼽 아래, 방광의 위, 노폐물의 배설을 맡은 부위로 대장, 방광, 소장, 신장 등이 딸림.

중초에 병이 있을 때에는 상초 보다 심하며 자주 배가 고평감을 느끼고 음식도 게걸스럽게 많이 먹으나 살이 찌지는 않는다.

하초병은 중초때 보다 더 심하며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이 기름을 탄듯이 뿌옇게 된다.

한방에서는 이 소갈병의 원인을 비위(여기서 비장은 양방에서의 췌장에 해당한다)가 약해지고 화(火)가 피부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옹저가 잘 생긴다고 하였다. 옹저란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화농성 피부병을 말한다.

또한 내상노역(심신의 스트레스)도 큰 원인이라 했는데 이것은 감정과 혈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양의학의 입장과 일치한다.

아울러 “상초, 중초가 평탄하면 병이 하초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여 초기에 치료를 잘 하여 병이 하초(중증 당뇨병)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당뇨병치료의 양방과 한방의 차이

가장 중요한 당뇨병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양의학에서는 일단 병의 이름이 결정이 되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의 진단의 목적은 병의 이름을 결정하는데 있고 병명이 결정되면 치료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정해진 방법대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병명을 판정하고 실험적으로 정해진 치료를 해주면 의사의 임무는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명을 똑부러지게 정하는 것이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병명은 확실치 않아도 치료가 되면 환자는 편안해질 수 있고 설혹 병명을 확실하게 정해도 치료효과는 신통치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방과 양방의 개념차이인데 당뇨병의 치료도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인들이 한방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병명때문인데 당뇨의 원인만 해도 ‘풍습’, ‘당화’, ‘비기부족’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한의학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고는 치료방침을 설명해주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의 치료가 결국은 인슐린요법에 귀결되지만 한의학에서는 사람에 따라 즉 체질과 병이 상초에 있는지 아니면 중초나 하초에 있는지에 따라 처방이 제각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어도 병중에 따라 약이 다르고 증상은 같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처방이 또 다른 것이다.

이러니 당뇨병에서는 누구에게나 또 같은 약을 쓰는 양의의 눈으로 보면 한방치료가 믿음에 안가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그러나 한방치료로 당뇨가 완치는 안되어도 조절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실험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 한방에서의 당뇨치료

당뇨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방요법 몇가지만 소개해보기로 한다.

중국 당나라 때에 지은 '천금요방'이란 한의서에 보면 "만약 술, 여자, 짬 음식 등을 주의하여 예방하지 않으면 소갈은 결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여 당뇨병은 예방이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외대비요'라는 책에 보면 "음식은 마땅히 배가 고파지도록 속이 빈 후에야 먹고 야식(夜食)은 금하도록 하며 항상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하라"고 하였다. 만약 소갈병이 생겨서 식욕을 억제하기 힘들 때에는 박하 30g, 울금 10g, 조각차 3g을 달여 식사 전에 마시면 좋다고 하였는데 이는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므로 누구든 해보아도 좋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예방법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인데, 당뇨병의 징후가 보일 때에는 가정에서 몇가지 약재를 끓여 마셔 본다음 한의사에게 가서 결과를 설명하고 정확한 체질감별을 받은 다음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병의 징후가 있으면서 숨이 차고 가슴이 뛰면서 답답하면 인삼, 오미자, 백복령, 연자육을, 목이 마르고 갈라지면 현삼, 황기, 갈근, 천화복을, 입에서 단내가 나고 어지러우면 생지황, 황연, 백출, 맥문동을, 눈이 침침해지고 나른하면 사삼, 감국, 구기자, 결명자를, 변비가 심해지고 아랫배가 더 부룩한 당뇨환자는 백출, 복령, 황기, 산약

을, 귀에서 소리가 나고(이명) 밤에 소변을 자주 보면 숙지황, 황정, 보골지, 구기자를 달여 마시면 좋은데 이들 약재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차처럼 끓여 마시고 만약 컨디션에 이상이 생기면 한의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당뇨병치료의 지름길

당뇨병의 치료에 민간요법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환자를 보다보면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당뇨병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에도 유행이 있어 한때에는 쇠뜨기풀, 게르마늄, 두릅나무 뿌리껍질, 감잎, 메주콩, 달개비풀, 솔잎, 영지버섯, 알로에 등이 많이 쓰였고 요즈음에는 누에를 말려 가루낸 것이 유행하고 있다.

앞서 말한대로 잘 안났는 병일수록 민간에서 쓰는 비방이 많은 법인데 민간요법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을 때도 많으나 근본적인 치료는 뒤로 미룬채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민간요법도 체질에 따라 맞는 경우가 있고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뇨병환자인 경우가 특히 그렇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현혹되기 보다는 의사나 한의사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병의 진전상태, 체질, 소갈의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뇨병 조절의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DAK**